

“따스한 햇살 받으며 그림 즐기세요”



담양에 문 연 남촌미술관·카페

어릴 적 꿈은 화가였다. 집안 사정으로 공대에 진학했고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했다. 연구·개발로 바쁜 일상에서 그에게 위트가 된 건 ‘그림’이었다. 20년 넘게 그림을 그리며 수차례 개인전을 열기도 한 그는 “회사를 그만두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몇 년 전부터는 구체적인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림으로 여러 사람이 소통하는 미술관과 카페를 만들고 싶다.”

담양군 담양읍 남촌마을에 들어선 남촌 미술관은 그의 꿈이 열매를 맺은 곳이다. 카페와 전시 공간을 겸한 근사한 문화 공간이다.

이성태(56)씨는 삼성전자에서 30년간 근무했다. 부산 출신으로 광주 공장에 내려온 건 지난 1997년. 주말이면 화구통 메고 그림 그리러 자주 왔던 남촌마을에 지난 4월 남촌미술관·카페를 열었다.

담양공고 사거리에서 5분 정도 떨어진 남촌미술관은 2채의 건물로 구성돼 있다. 건물은 그가 직접 디자인하고 시공했다. 구글에서 3D 설계 웹을 다운 받아 직접 스케치하고 디자인을 했다. 자신이 원하는 공간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다.

건물 밖 정원에 놓아둔 의자와 소품 등도 모두 직접 제작하는 등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본관 건물 1층은 그림이 걸린 갤러리 카페로 100호짜리 대형 그림 등 다양한 작품이 걸려 있으며 공예가가 만든 가족제품도 판매한다. 카페 2층은 온전한 전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눈에 띄는 공간은 푸른색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한 미술관 별관이다. 2층 규모로 깊숙한 직사각형 공간에서 그림을 만날 수 있다. 동근 유리창 밖으로 내다 보이는 바깥 풍경이 일품이다. 하루 24시간, 사계절 모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미술관을 구성하며 제일 신경 쓴 부분은 어디서든지 그림을 자연스레 관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1층 카페는 물론이고 본관 2층의 전시공간, 컨테이너 박스로 이뤄진 미술관 별관에도 모두 탁자와 의자를 놓아두었어요. 차를 마시며 편하게 답소

삼성전자 출신 이성태씨 오픈

건물 직접 디자인...개인전 열기도

30일까지 개관기념 김미숙 초대전

지역작가 무료 대어...전시일정 빼곡



하고 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림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싶었죠.”

이 씨는 지역 작가들에게 무료로 전시 공간을 내주고 있다. 현재는 개관 기념전으로 서양화가 김미숙씨 초대전(30일까지)을 열고 있다. 전남도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 작가는 미술관 공간 전체를 활용, 100여점이 넘는 작품을 전시 중이다. 이미 올해와 내년 전시 일정도 빼곡히 짜여 있다. 서양화

가 오수경·이은숙씨를 비롯해 주미희·주성범·김대진·김혜숙·이금주·정선 작가 등이 개인전을 개최한다.

“지역 작가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죠. 미술관에 마을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 눈높이에 맞는 그림들도 많이 걸려주고 있어요. 내년까지는 공간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내년엔 부터는 컨셉을 잡아 운영해보려합니다.”

이씨는 자신의 작품도 꾸준히 선보일 계획이다. “수십년전 유화를 처음 그릴 때 손을 부들부들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짜릿함도 잊을 수 없어요. 직장생활에서 그림은 저에게 활력을 줬죠. 첫 개인전이 2009년이었어요. 저 같은 아마추어가 감히 무슨 전시회나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꿈을 이뤘죠.”

이씨는 일곡갤러리에서 첫 전시회를 연 후 광주 롯데갤러리, 남해 바람흔적미술관 등에서 모두 7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부산아트페어 등에도 참가했다. 등대, 자전거, 여인이 등장하는 그의 그림은 따뜻하고 편안하다. 미술관 건물 외벽의 자전거와 등대는 그의 그림에서 모티브를 따왔고 미술관 철제 빔도 등대를 상징한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 위안이 되고 그리움의 대상이었던 게 바로 등대다.

“사람들이 그림을 통해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즐겁습니다. 이곳을 문화적 감성이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버는 돈은 직장 생활 때와 비교할 수도 없지만 행복지수는 훨씬 더 높아요. 아침에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 모든 게 즐거워요. 회사 다닐 때는 그렇지 않았죠(웃음). 오늘도 재미있게 보냈구나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씨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 커피를 내리고, 매일 장을 봐서 돈가스과 파스타도 직접 만든다. 카페 앞 이젤엔 그가 그리다 만 그림 한 점이 놓여 있었다. 따스한 햇살 받으며 그림 그릴 때 가장 행복하다고 그는 말한다.

매달 2·4째주 화요일 휴관. 오전 10시~밤 9시30분. 문의 061-381-43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기대용 작가 개인전 ‘생의 근원’

15일까지
아트타운갤러리



▶ ‘생의 근원’

다양한 색채의 향연이다. 구체적인 형상을 보여주는 대신 색채의 조합만으로 관람객을 이끈다. 붉은색, 푸른색, 녹색을 기조로 다채로운 색감이 어우러진 작품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느낌을 전한다.

기대용 작가 개인전이 오는 15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아트타운 갤러리에서 열린다. ‘생의 근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동명의 연작 시리즈를 만날 수 있다.

동료 오전규 작가는 “그의 붓이 지나간 색채의

흔적이 날다르게 아름답다. 그것은 그의 고운 습결과 아름, 고뇌가 함께 고스란히 배어나오기 때문일 거”라고 평했다. 뇌성마비 장애를 이겨내며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는 그의 작업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일 거다.

기씨는 호남대 미술학과와 홍익대 미술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으며 4차례의 개인전과 ‘추상, 그 이후의 추상전’, ‘한국 현대 작가 뉴질랜드 초대전’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문의 062-232-71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

여성작가회

34회 정기전

15일까지 금남로 분관



▶ 함원순 작 ‘명옥현의 여름’

지역에서 활동을 펼치는 여성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광주·전남 여성작가회(회장 함원순) 34회 정기전이 오는 1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열린다. ‘공유·마주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원로와 젊은 작가들이 풍경, 인물, 비구상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1982년 전남 경화랑에서 ‘광주여류화가 초대

전’이라는 타이틀로 첫 전시회를 열었던 광주·전남여성작가회는 초대 회장 임막임씨를 비롯해 강숙자·문숙자·정소유·최강희·고정희·신숙정씨 등이 회장을 맡으며 다양한 전시를 열어왔다.

전시에서는 강숙자·고정희·최강희·강은주·기옥란·김귀덕·김영순·선현옥·주미희·허정·황경숙씨 등 40여명의 회원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222-80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내일 ‘근·현대미술 궤적과 흐름’ 강좌

광주시립미술관은 ‘현대 미술 강좌’ 마지막 행사로 장경화(사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관이 함께하는 ‘한국 근·현대미술 궤적과 흐름’을 개최한다. 14일 오후 3시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한국 근현대미술 흐름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꾸러진다.

장 학예연구관은 조선 후기 회화와 근대성, 일제강점기 미술의 의미와 해방 이후 추상 모더니즘 미술, 1980년대 민중미술, 뉴미디어 사회의 대두와 광주비엔날레 등 미술의 다양한 흐름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 그는 뉴욕 록펠러 A.C.C 재단 연구기금을 받았으며 저서로 ‘오월의 미학-뜨거운 가슴이 여는 새벽’이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신양파크호텔

가을여행

기간 · 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100,000 / 디럭스룸 ₩110,000

객실박 + 조식인 + 사우나인 (조식인 추가시, ₩15,000)

